

분단과 교류이후 남북한 한복에 나타난 변화 -여자 저고리 중심으로-

장 인 우[†]

인천대학교 패션산업전공

Change in Hanbok of South and North Korea after the Division and the Interexchange -Focusing on Women's Jeogori-

Inwoo Chang[†]

Dept. of Fashion & Industry, Incheon University

(2005. 5. 20. 접수)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recent changes in construction, design, and technical vocabular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f the Korean woman's top(Jeogori), which is a main part of her traditional costume(Hanbok). After Korea War, Korea was divided into two countries(the division), and there was little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until 1972(the interexchange). Thus, this study will compare two time periods: 1953-1972 and 1972 to recent times. Hanbok construction books published in both Koreas are evaluated here to see wha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existed during these two periods. Women in the North continued to wear their traditional costume(renamed the Chosunot in the North) as daily clothing, but women in the South began saving the Hanbok only for parties and ceremonies. A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ontrolled its peoples dress and continued to make changes, the North kept developing new technical vocabularies, but the South continued to use the same terms for the Hanbok. From the end of the 1990s, the Chosunot had become more and more similar to the Hanbok in colors, shapes, and materials.

Key words: Hanbok, Chosunot, Technical Vocabularies, Differences, Similarities; 한복, 조선옷, 구성어휘, 이질화, 동질화

I. 서 언

한반도는 6.25전쟁(1945)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남북으로 분단되었으며, 7.4남북공동성명(1972)을 시점으로 남북이 다시 교류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교류뿐 아니라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와 통합에 대한 연구들이(이선재, 1993; 이기춘 외, 1997,

1998, 2000)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반세기동안 분단된 남북한의 한복문화가 각기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남북교류이후에는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의 고유옷 가운데 저고리는 시대와 성별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착용하는 의복으로 한복을 대표하는 옷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성인 여자 저고리를 어휘와 구성 그리고 디자인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남북의 한복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여자 저고리를

[†]Corresponding author

E-mail: changiw@incheon.ac.kr

본 논문은 2005년도 인천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제작하는데 기본이 되는 구성책 특히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980년대 이후 저술된 남북한의 한복 구성책을 사용하였다. 남한의 경우는 『한복구성학』, 『한복실기』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북한의 경우는 『조선민족옷』, 『조선민족의상』, 『민족옷』등을 참고하였다.

남한 연구자에 의한 북한의 한복문화연구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룬 연구(이선재, 1993)와 북한의 전통복식을 계승과 현대화의 문제를 다룬 연구(김여경, 2001; 김여경, 홍나영, 2004)로 시작단계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II. 저고리의 명칭과 구성

1. 남한 저고리

남한의 한복구성책은 1970년대부터 볼 수 있으며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 다수의 한복구성책들이 발간되었다(관리공단, 2002; 구혜자, 2001; 김분옥, 1983; 김분철, 1977; 김정호, 이미석, 2002; 박경자, 임순영, 1983; 박선영, 2001; 박영순, 1994; 서옥경, 2002; 소황옥, 2004; 손경자, 1990; 양숙향, 2001; 이정옥 외, 1999; 이주원, 1987; 임상임, 유관순, 1999; 홍나영 외, 2004). 이러한 구성책들은 칩선장이나 그 후계자에 의한 장인들(구혜자, 2001; 박선영, 2001)과 현장의 기능인들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간한 『한복실기』등 몇몇 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교육현장에 있는 교수들에 의해서 저술되었으며 그 내용이 유사하였다. 이에 그 간 가장 많이 재판된 이주원의 『한복구성학』(1987)과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의 기능인을 위한 『한복실기』(한국산업인력공단, 2002)가 그 대표성을 지닌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자료로 선정하였다.

1) 어휘

『한복구성학』에서는 한복의 구성어휘를 의복의 부분명칭과 치수명칭으로 분류하였으며, 부분명칭에는 어휘 「길·소매·결섄·안섄·깃·웃고름·동정·진동·소매부리·도련·배래」가 나타나며, 치수명칭에는 「저고리길이·폼·화장·고대·진동·소매나비·소매부리·섄길이·섄나비·결깃길이·깃나비·웃고름길이·웃고름나비·동정나비」 등이 있다. 『한복실기』에서는 저고리 형태에 따른 세부명칭에 「길·소매·결섄·안섄·깃·웃고름·동정·진동·소매부리·도련·배래」 등이 있고, 제작사의 구성부위 명칭에는 「도련선·깃·깃머리·결깃·안

깃·깃너비·깃길이·깃머리·결깃길이·안깃길이·안깃선·깃선·동정·동정너·길·고대·고대점·결섄·섄선·섄코·결섄윗너비·결섄아래너비·안섄윗너비·안섄아래너비·고름너비·동정너비·결마기」 등이 있다. 여기서 『한복실기』에서는 「도련선·깃선·동정너·고대점·동정너비」 등과 같은 어휘들이 이전 구성책과는 달리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능인 중심의 구성책인 『한복실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유추한다.

이러한 어휘가운데 앞길(앞깃길)·수구(소매부리)(김분옥, 1983; 김분철, 1976; 박선영, 2001; 이주원, 1986; 임상임, 유관순, 1999)/부리(김정호, 이미석, 2002; 서옥경, 2002), 고대점(서옥경, 2002)/고대깃(박경자, 1990; 양숙향, 2001)·깃머리/깃궁둥이(김분옥, 1983)·깃모서리(김분철, 1976)동정/동정코(김분옥, 1983; 양숙향, 2001)와 같이 일부 유사어휘가 공존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사용어휘가 구성책에 관계없이 일치한다.

2) 구성

남한에서는 저고리를 구성의 기본치수로 가슴둘레와 화장을 사용하며, 이때 가슴둘레는 윗가슴둘레를 말한다(이주원, 1987;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반면 저고리 길이는 임의로 결정하는 경우(이주원, 1987)와 등길이에 기준(등길이-10~12cm/한복실기)하는 두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저고리길이 중 앞길이는 뒷길이보다 약 3~4cm 길게 하여 앞가슴으로 인한 앞처짐을 고려하였다(이주원, 1987;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이외 진동과 저고리의 폼 그리고 고대의 크기는 가슴둘레에 비례하며, 결섄나비는 깃나비에 비례된 반면 안섄나비는 2~3cm로 일정하였으며, 고름은 일정한 경우(이주원, 1987)와 치마길이(한국산업인력공단, 2002)에 비례시킨 두 경우가 있다.

남한 저고리는 구성에 있어서 기본치수는 일치하지만 저고리길이·고대·섄나비·깃나비·고름·저고리 길이는 책에 따라 기준치수를 달리하였다.

2. 북한 저고리

북한의 한복디자인에는 양일순(nk.joins.com)을 중심으로 김명실, 리의복, 송은숙, 천석근, 차치규, 최정옥, 리유미, 홍애련, 리정조, 박철환, 한영호, 장은선 등이 있으나, 여기서 구성책 『조선민족옷』(경공업연구소, 1995)·『조선민족의상』(리유미, 1995)·『민족

옷」(경공업성피복연구소, 2002)을 통하여 보면 양일순, 김명실, 리의복, 송은숙, 천석근, 차치규, 최정옥은 심사를 맡고, 리유미, 홍애련, 리정조, 박철환, 한영호, 장은선은 창작 및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이들이 실제 디자인과 제작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자는 심사의 지도교수 혹은 원로로 추정할 수 있으며, 후자의 리유미, 홍애련 등은 젊은 학자 및 창작가라 추정한다. 이러한 북한의 한복구성책은 한복의 구성은 물론 한복의 새로운 디자인까지 제시하고 있다.

1)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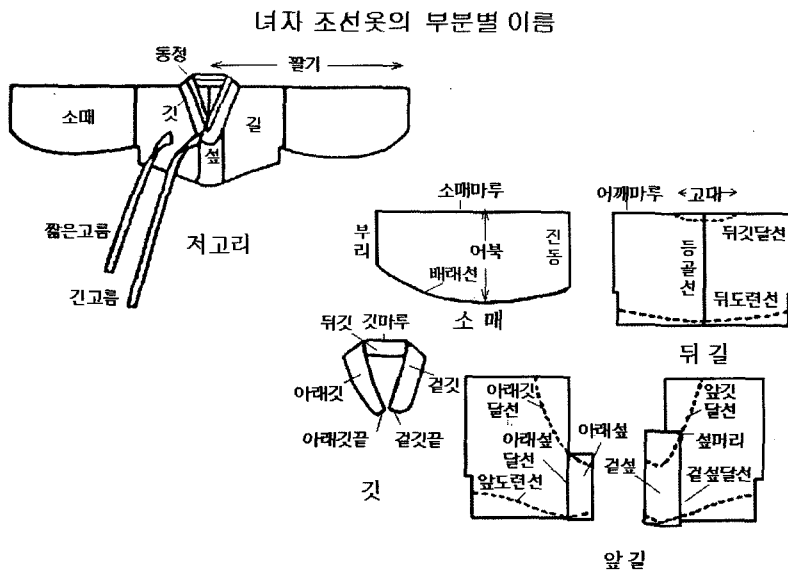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구성부위별 명칭」을 「부분별 이름」이라 하며, 저고리의 부분이름의 부위는 <그림 1>과 같이 「깃·소매·섶·깃·동정·고름·활기」를 볼 수 있다. 이외 구성부위별 이름은 소매의 「진동·소매마루·어북·배래선·부리」와 앞길의 「앞깃달선·섶머리·겉섶달선·겉섶·아래깃달선·아래섶달선·앞도련선」 그리고 뒷길에 「고대·뒤깃달선·뒤도련선·등골선·어깨마루」가, 깃에는 「겉깃끝·겉깃·뒷깃·깃마루·아래깃·아래깃끝」 등으로 세분화되어있다.

2) 구성

북한에서는 저고리 구성에 있어서 기준치수는 가슴둘레와 활기를 기준신체크기로 사용하며 이때 가

슴둘레는 앞가슴의 제일 높은 곳의 크기를 사용한다.

저고리 길이는 일정한 경우(26cm, 경공업성피복연구소, 2002; 리유미, 1995)와 가슴둘레에 비례한(1/4 가슴둘레+6cm, 경공업연구소, 1995) 두 경우가 있으며, 저고리의 앞길이는 뒷길이보다 길게(3.5cm) 하여, 앞치짐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경공업성피복연구소, 2002; 리유미, 1995). 고대는 1/3깃나비 혹은 1/4 가슴둘레+2cm(경공업성피복연구소, 2002; 경공업연구소, 1995)로 깃나비와 가슴둘레에 비례되거나 착용자에 관계없이 일정한 (약8.2cm/리유미, 1995) 두 경우가 있으며, 수구의 크기는 진동의 3/5(경공업연구소, 1995)과 1/2진동+1cm(리유미, 1995), 12cm(경공업성피복연구소, 2002)으로 책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겉섶선의 위치는 고대/2선을 직각으로 이동하였으며, 섶나비는 고대/2에 고대/4를 더한 나비로 가슴둘레에 비례한 반면 아래섶(안섶) 크기는 일정하게(3.5cm) 구성되었다(경공업성피복연구소, 2002; 경공업연구소, 1995, 리유미, 1995). 고름의 길이는 활기(화장)에 기준되었으며(짧은 고름은 활기+20 cm, 긴고름은 짧은 고름+12cm) 진동은 3/4저고리길이(경공업연구소, 1995)인 경우와 일정크기(경공업성피복연구소, 2002; 리유미, 1995)이며, 수구는 진동에 비례하거나 12cm로 일정하다. 북한의 구성책에서는 기준치수와 앞치짐 그리고 섶나비는 동일한 반면 저고리 길이·고대·수구·고름



<그림 1> 여자 조선옷의 부분별 이름
 자료출처: 경공업위원회 피복연구소. (1995). 조선민족옷.

의 기준치수는 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III. 남북한 저고리의 비교

1. 어휘

분단이후 서로 다른 언어정책아래서의 한복어휘들

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분단이전 구성어휘를 조선시대 『역어유해』(17세기/1974)와 일제강점기의 『조선재봉참고서』(손정규, 1935)에서 살펴보았다(그러나 과거 역시 의복 특히 구성어휘에 관한 기록은 극히 제한되어 자료의 한계를 갖고 있다). <표 1>은 한복구성에 관한 어휘를 분단 전후와 남북한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 1> 저고리 구성어휘의 변천

| 시대와 지역 기록 어휘 | 조선시대 | | 일제강점기 | | 남한 | | 북한 | |
|--------------------|----------------|-------------------|---------------|--------------------|-----------------|------------------|---------------|--|
| | 역어유해 (17세기) | 조선재봉참고서 (1925) | 이주원 (1987)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 조선민족옷 (1995) | 조선민족의상 (1995) | 민족옷 (2002) | |
| 구성부위 | 재봉(裁縫) | 재봉(裁縫) | 한복구성 | 한복구성 | 조선옷만들기 | 조선옷만들기 | 민족옷만들기 | |
| 저고리 | 저구리옷(小子) | 저고리(襦) | 저고리 | 저고리 | 저고리 | 저고리 | 저고리 | |
| 길 | 옷옷동(上身) | 길(身丈) | 길 | 길 | 길 | 길 | 길 | |
| | 옷아랫동(下身) | 뒤폭(後身幅) | 뒤폭 | - | - | - | - | |
| | - | 앞폭(胸幅) | 앞폭 | - | - | - | - | |
| 깃 | - | 깃(身頃) | 깃(胸) | 깃 | 깃 | 깃 | 깃 | |
| 도련 | - | 도련(裾) | 도련 | 도련 | 도련 | 도련 | 도련 | |
| 깃 | 깃(領) | 깃(衿) | 깃 | 깃 | 깃 | 깃 | 깃 | |
| 고대 | - | 깃고대/고대(衿肩明) | 고대 | 고대 | 고대 | 고대 | 고대 | |
| 고대점 | - | - | 고대점 | 고대점 | - | - | - | |
| 뒤깃 | - | - | - | - | 뒤깃 | 뒤깃 | 뒤깃 | |
| 뒤깃달선 | - | - | - | - | 뒤깃달선 | 뒤깃달선 | - | |
| 등바대 | 깃바대(領?肩) | - | 등바대 | - | - | 등바대 | - | |
| 깃마루 | - | - | - | - | 깃마루 | 깃마루 | 깃마루 | |
| 앞깃/옆깃 | - | 앞깃/옆깃(左衽丈) | 옆깃 | 옆깃(나비/옆이) | 옆깃 | 앞깃 | 옆깃 | |
| 깃선 | - | - | 깃선 | 깃선 | 앞깃달선 | 앞깃달선 | 앞깃달선 | |
| 깃머리 | - | - | 깃머리 | 깃머리 | 깃머리 | - | - | |
| 깃깃팔 | - | - | - | - | 깃깃팔 | - | 깃깃팔 | |
| 안깃/아래깃 | - | 안깃(右衽丈) | 안깃 | 안깃 | 아래깃 | 아래깃 | 아래깃 | |
| 아래깃달선 | - | - | - | - | 아래깃달선 | 아래깃달선 | 아래깃달선 | |
| 아래깃팔 | - | - | - | - | 아래깃팔 | - | 아래깃팔 | |
| 뒤깃 | - | - | - | - | 뒤깃 | 뒤깃 | 뒤깃 | |
| 뒤깃달선 | - | - | - | - | 뒤깃달선 | 뒤깃달선 | - | |
| 동정 | 동정(護領) | 동정(掛衿) | 동정 | 동정 | 동정 | 동정 | 동정 | |
| 소매 | 소매(袖子) | 소매(袖) | 소매(袖) | 소매 | 소매 | 소매 | 소매 | |
| 스 매깃동 | 스 매깃동(大袖) | - | - | - | - | - | - | |
| 등동 | 등동(小袖) | - | - | - | - | - | - | |
| 소매마루 | - | - | - | - | 소매마루 | 소매마루 | 소매마루 | |
| 진동/진동 | - | 진동(袖幅) | 진동 | 진동 | 진동 | 진동 | 진동 | |
| 어복 | - | - | - | - | 어복 | 어복 | 어복 | |
| 끝동 | - | 끝동(袖口切) | 끝동 | 끝동 | 끝동 | 끝동 | 끝동 | |
| 배래 | - | 배래(襟脇) | 배래 | 배래 | 배래선 | 배래선 | 배래선 | |
| 수구/부리 | - | 수구/부리(袖口) | 수구/부리 | 소매부리 | 부리 | 부리 | 부리 | |
| 화장/활기 | - | 화장(行) | 화장 | 화장 | 활기 | 활기 | 활기 | |
| 겉섶 | 앞자락(前襟) | 겉섶(右) | 겉섶 | 겉섶 | 겉섶 | 앞섶 | 겉섶 | |
| | 뒷자락(後襟) | - | - | - | 겉섶달선 | 앞섶달선 | 겉섶달선 | |
| 안섶 | 안섶(低襟) | 안섶(左) | 안섶 | 안섶 | 아래섶 | 아래섶 | | |
| 아래섶달선 | - | - | - | - | 아래섶달선 | 아래섶달선 | 아래섶달선 | |
| 섶코 | - | - | - | 섶코 | 섶코 | 섶코 | - | |
| 도련 | - | 도련(裾) | - | 도련(도련선) | 도련 | 도련 | 도련 | |
| 긴고름 | - | 큰 | 긴고름 | 긴고름 | 긴고름 | 긴고름 | 긴고름 | |
| 짧은고름 | - | - | 짧은고름 | 짧은고름 | 짧은고름 | 짧은고름 | 짧은고름 | |
| 뒤중섶선 | - | 등술 | 뒤중섶선/등술 | 등술 | 등골선 | 등골선 | 등골선 | |

분단이전 의복구성을 총칭하는 어휘를 살펴보면 『역어유해』, 『조선재봉참고서』에서 「재봉(裁縫)」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저고리에 대하여 『역어유해』는 「小襖子」로, 『조선재봉참고서』는 「襦」로, 또 깃은 「역어유해」는 「領」으로, 『조선재봉참고서』에서는 「衿」으로, 동정은 『역어유해』는 「護領」으로, 『조선재봉참고서』에서는 「掛衿」으로 서로 다른 한자로 표기되었다. 이는 『역어유해』는 조선시대 중국어 어휘집인 반면 『조선재봉참고서』는 일제강점기의 의복구성책으로 전자는 중국식 한자를, 후자는 일본식 한자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에 의하면 전통의상을 이르는 어휘로 남한에서는 대부분 「한복」 이외에 「한국의상·고유옷·韓服」이라 한 반면 북한에서는 「민족옷·조선옷」으로 표기하고, 의복의 제작을 뜻하는 어휘로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는 「재봉」이라 하고, 남한에서는 「봉제 혹은 만들기」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구성」이라 하며, 북한에서는 「만들기」라 한다. 또한 구성어휘 가운데 「저고리·깃·소매·동정」의 사용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지며, 어휘 「고대(衿明)·진동(袖幅)·도련(裾)·고름·배래(袴)·수구(袖口)·부리」 등은 적어도 일제강점기(손정규, 1935)부터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고대·도련·고름」과 「배래 혹은 배래선」은 남북한 모두에서 통용된다. <표 1>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분단 이전에는 저고리 구성어휘가 고유어와 한자가 병행하여 표기된 반면 분단 이후에는 남북한 모두 한자 거의 배제된 한글만으로 표기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표 1>에 의한 저고리 구성어휘 가운데 분단 이후 남북한의 차이는 깃과 셔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분단이전 『조선재봉참고서』에서 「겉깃·앞깃·안깃·안셔」이 남한에서는 「겉깃·안깃·겉셔·안셔」으로 지속되는 반면 <표 1>과 <그림 1>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겉깃·안깃·겉셔·안셔」 외에 「앞깃·아래깃·아래셔」의 어휘들이 새롭게 부가된다. 이는 비대칭 의복인 저고리의 경우 앞여밈에서 왼쪽길의 깃과 셔를 남한에서는 접두어 「겉」을 통하여 겉깃 혹은 겉셔으로 일괄적으로 표기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겉깃」 외에 앞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앞깃」이란 새로운 어휘를 사용한다. 여기서 일제강점기의 「안깃」 혹은 「안셔」의 어휘가 남한에서 그대로 통용되는 반면 북한에서는 「아래깃·아래셔」으로 아래의 의미를 강조한 새로운 어휘들로 바뀌었다. 이는 두 겹의 깃에서 안감의 깃과 오른쪽길의 깃(안셔깃)이 혼동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상하(上下)의 위치개념에서 걸감 중 오른쪽길의 깃이나 셔를 아래깃 혹은 아래셔으로 구분한 것이다.

또 <표 1>에 의하면 북한의 어휘 가운데 「--마루·--달선·어복·뒤깃」을 볼 수 있다. <그림 1>에 의하면 이러한 어휘 「--마루」는 「길마루·소매마루·깃마루」로 꺾선을 의미하며, 어휘 「--달선」은 「깃달선·셔달선」으로 길에 깃이나 셔를 봉제할 완성선을 뜻한다. 즉 이 같이 새롭게 형성된 어휘들은 보다 구체적인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어휘들이라 할 수 있다.

이외 <표 1>에 의하면 남북한에서 저고리의 동일 부위에 대해 전혀 다른 어휘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남한에서는 「화장·뒤중심선/등솔」이라 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활기·등골선」이라 한다. 여기서 「화장」은 그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일제강점기부터 그 사용을 볼 수 있다. 반면 북한에서 사용되는 어휘 「활기」는 활개 즉 팔다리 사지를 뜻하는 고유어(이희승, 1986)이며, 「등골」 역시 우리 몸 가운데 등 뒤 한 가운데 길게 고랑이 진 곳(이희승, 1986)이란 의미의 고유어이다. 이러한 새로운 의복 구성어휘들이 우리의 고유어인 동시에 인체의 명칭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저고리 구성에 나타난 어휘 가운데 분단 전후의 변화는 한글화이다. 분단이전 한글과 한자의 병용과는 달리 분단 이후에는 남북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한글만을 사용하는 한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어휘가 그대로 답습되면서 단지 한글로만 표기(한복·구성)되는 소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반면 북한에서는 한자어 대신 고유어(조선옷·만들기)로 대체될 뿐 아니라 활기(화장)·등골(등솔)·어복(배래)·마루 등의 새로운 고유어어휘들과 아래셔·아래깃과 같이 구성위치와 역할에 따른 구체적인 어휘들이 생성되는 적극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다.

2. 구성

남북한의 저고리 구성은 남북한과 분단전후의 한복구성책에 나타난 제도에 필요한 신체치수와 체촌 방식 그리고 제도시 기준이 되는 인체부위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조선재봉참고서』에 나타난 분단이전의 한복구성은 앞뒷길의 길이는 앞치짐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표 2> 분단전후 저고리 구성에 필요한 신체치수 비교

| 기준부위 시대/지역 | 기준치수 | 등길이 | 앞길이 (앞치검) | 앞뒤폭차 | 화장/ 활기 | 진동 | 겉섶 | 고름 | 수구/ 부리 | |
|---------------|------|----------|--------------|-------------------------|-----------|-----|-----------------------|-----|-------------|-----------|
| 분단 이전 | 앞폭크기 | 40 | 無 (앞뒤동일) | 有 앞폭이 뒤폭보다 1/5 넓게 | 일정(66) | 21 | 겉섶위나비는 깃나비보다 넓게 | | | |
| 분단 이후 | 남한 | 윗가슴둘레·화장 | | 有 | 無(동일) | 신축치 | 가슴둘레 | 깃나비 | 일정/치마 길이 | 일정/ 진동 |
| | 북한 | 가슴둘레·활기 | | 有 | 無(동일) | 신축치 | 등길이 | 고대 | 활기 | 진동 |

반면 품의 넓이는 뒤폭을 앞폭보다 1/5만큼 작게 하였다. 수구는 소매길이(袖丈)의 1/4로 하였으며, 섶길이는 (저고리)옷길이로, 그리고 좌입의 폭은 8cm, 우입폭은 6cm로 일정하였으며, 우입(앞섶)의 크기는 좌입(겉섶)의 1/3로 좁게 구성되었다. 섶나비는 깃나비보다 1/3정도 넓게 구성되었으며, 깃나비의 약 1.5배가 된다.

<표 2>에 의하면 저고리 제도시 분단전후의 차이는 앞치검과 앞뒤폭 크기에서 볼 수 있다. 즉 분단이전에는 앞치검이 고려되지 않고 앞폭이 뒤폭보다 넓게 구성된 반면 분단이후 남북한 모두 앞치검이 고려되었으나 오히려 앞뒤폭이 동일하게 구성된 변화를 볼 수 있다. 또한 <표 2>에 의하면 저고리 제도시 남북한의 차이는 가슴체촌방식과 진동과 겉섶 등 기준부위에서 볼 수 있다. 즉 남한에서는 윗가슴둘레를, 북한에서는 정가슴둘레를 사용하고, 진동은 남한에서는 그 기준이 가슴둘레인 반면 북한에서는 등길이를 달리하였다.

저고리 구성에서는 분단 남북한 모두 가슴둘레와 화장(활기)을 기준부위로 사용하였지만, 기준부위의 체촌위치를 달리하였고, 저고리의 제도에 있어서도 기준신체부위(가슴둘레, 고름, 치마길이, 화장(활기), 깃)를 달리하였다.

3. 디자인

남북교류이후 서울에서 공연한 평양예술단원의 한복에 나타난 직선배래는 분단이후 남북한 여자 저고리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차이이었다. 그러나 최근 개성공단 착공식에서의 소고춤(2003)을 추는 무희의 한복<그림 2>에서 이전의 북한 저고리의 직선배래와는 달리 둥근 배래곡선의 한복을 볼 수 있다. 이는 남북교류이후 북한 조선옷의 디자인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최근에 발간된 북한의 구성책 『조



<그림 2> 북한 소고춤에 나타난 한복
자료출처: "첫 삼 뜯 개성공단", 2003.

선민족의상』(1995), 『민족옷』(1995), 『조선민족의상』(2002)에 나타난조선옷디자인을 색상·스타일·재질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조선민족옷』(1995)에서는 녹의홍상(綠衣紅裳)이나 황의홍상(黃衣紅裳) 등 전통색상의 배색<사진 1, 2, 3>과 색동<사진 3, 7, 8, 9> 등 전통미를 강조한 디자인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색동을 응용한 디자인은 북한에서 선호하는 디자인 요소라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구성책에서 등장하고 있었으며 그 시기별 변화를 보면 앞서기의 『조선민족옷』, 『조선민족의상』(1995)에서는 오방색에 의한 원색<사진 3, 7, 8, 9>의 다색의 색동인 반면 『민족옷』(2002)에서는 동색(同色)에서 색조(Tone on Tone)만 달리한 단색색동으로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사진 10, 11). 특히 남한 한복디자인과는 달리 색동을 치마의 선단과 밑단에 장식한 디자인<사진 7, 10>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이외에도 『민족옷』(2002)에서는 밝은 색상의 의상들<사진 4, 5, 6>이 등장한다.

『조선민족의상』(1995)에서는 치마의 실루엣이 A-라인으로 인위적인 형태미를 강조한 것<사진 9, 14, 15>들을 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사진 15>와 같이 가슴부위의 주름분량을 완전히 줄인 것과 주름부

| | | | | | |
|---|---|---|---|--|---|
|  |  |  |  |  |  |
| <사진 1> 조선민족옷, 4 (1995) | <사진 2> 조선민족옷, 10 (1995) | <사진 3> 조선민족옷, 11 (1995) | <사진 4> 민족옷, 5 (2002) | <사진 5> 민족옷, 6 (2002) | <사진 6> 민족옷, 11 (2002) |
|  |  |  |  |  |  |
| <사진 7> 조선민족옷, 12 (1995) | <사진 8> 조선민족옷, 16 (1995) | <사진 9> 조선민족옷, 15 (1995) | <사진 10> 민족옷, 13 (2002) | <사진 11> 민족옷, 12 (2002) | <사진 12> 민족옷, 13 (2002) |
|  |  |  | |  |  |
| <사진 13> 조선민족의상, 17 (1995) | <사진 14> 조선민족의상, 15 (1995) | <사진 15> 조선민족의상, 23 (1995) | | <사진 16> 민족옷, 17 (2002) | <사진 17> 민족옷, 17 (2002) |
|  |  |  | | | |
| <사진 18> 조선민족의상, 46 (1995) | <사진 19> 조선민족의상, 20 (1995) | <사진 20> 조선민족의상, 12 (1995) | | | |

<그림 3> 최근 북한 조선옷의 디자인 변화

위를 겹쳐 주름을 잡은<사진 18> 디자인들이다. 남한에서와 달리 북한 조선옷에서는 <사진 14>과 같이 두단 혹은 세단구성의 치마구성을 볼 수 있으며, 각 구성책에서 이러한 치마단의 형태가 사선으로 혹은 앞뒤의 길이를 달리하는 등 다양하였다. 이외 자수로 장식된 조선옷도 볼 수 있다(사진 19, 20).

비교적 최근의 『민족옷』(2002)에서는 유독 얇은 소재의 사용<사진 4, 5, 6>과 생활한복형의 조선옷<사진 16, 17> 등이 등장한다.

이와같이 북한에서 남북교류이후 남한의 한복과 혼돈할 정도로 변화한 북한 조선옷의 변화는 남한 한복 디자인이 북한에서 수용되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디자인변화를 볼 수 있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료를 한복구성책을 사용한 한계로 실제 북한에서 착용한 조선옷의 변화는 다음 연구로 이어지기 바란다).

IV. 분단과 교류이후 저고리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인

분단과 교류라는 사회정치적 변화를 거치면서 남북한 한복에 있어서 이질화와 동질화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이는 각기 다른 정치체제 아래에서 의복의 역할과 의복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의복의 경우는 교육과 제작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70년대 이후 황신업, 이리자, 이영희, 그레타리 등 전문 디자이너에 의한 제작과 대학의 가정대학소속 의류학 관련학과에서의 교육으로 이문화 된 반면 북한에서는 실제 디자인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며 구성책의 저자들의 소속을 통하여 볼 때 남한과는 달리 미술대학내에 소속된 차이를 볼 수 있다. 앞의 북한의 구성책에 한복디자이너가 제시된 것은 이에 기인된 것이라 본다.

분단이후 남한의 언어정책은 언어변화를 정리하는 관습에 입각하여 한자혼용과 한글진용에 국한된 언어정책인 반면 북한은 관 주도의 언어정책으로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것으로 한자어와 외래어의 고유어 화이었다(언어이질화, 2000). 따라서 북한의 한복 구성어휘의 한글화와 고유어화는 북한 사회의 언어정책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복의 착용을 분단이후 남북한에서 살펴보면 한복은 남한에서는 일상복보다는 외출복 혹은 명절용 의복과 결혼과 환갑과 같은 행사의 참가복(최선희, 정인희, 강순제, 1998; 최영미, 조효순, 1989; 황춘섭,

1977)과 같은 예복이었던 반면 북한에서 조선옷은 「획일화」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의복정책하에서 조선옷이 여성의 주된 일상복(이기춘 외, 1997; 이선재, 1993)이었다. 특히 1960년대경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강조하는 변화를 강조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북한의 조선옷은 노동에 적합한 옷으로 변화시키는 과정(김여경, 2001; 이선재, 1993)에서 저고리 소매가 직선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남북교류이후 북한의 의복정책이 「시대에 맞는 의복미를 강조」(국토통일원, 1989; 김여경, 2001)로 변화함에 따라 북한의 조선옷은 점차 행사복으로 예복화되었다. 특히 1999년 이후 개최되는 조선민족의상전시회를 통하여 새로운 조선옷디자이너들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2001년 남한의 한복디자이너인 이영희의 민족옷전시회(패션쇼)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남한의 한복디자이너가 알려졌다고 본다. 이는 앞에서 북한 조선옷의 변화가 2000년 이후 뚜렷이 나타나는 것도 그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와 같이 분단으로 달라진 남북한의 한복이 교류로 인하여 동질화 되는 변화는 북한 사회의 정책변화가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V. 결 언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분단 그리고 남북교류란 역사적 사건들을 거치면서 남북한 여자 저고리의 어휘와 구성 그리고 디자인에 나타난 한복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분단이후 남북의 한복은 어휘와 구성에서 이질화된 반면 교류이후는 북한이 남한의 한복디자이너를 수용함으로써 디자인에서 남북의 동질화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단이후 남북한 한복에 나타난 이질화는 어휘와 구성에서 볼 수 있었다.

한복의 착용은 북한에서는 일상복으로 남한에서는 외출복 혹은 예복으로 착용되었다.

남북의 이질화는 어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어휘에 있어서 북한은 한글화와 새로운 구성어휘의 생성 그리고 기존 한복 구성어휘의 고유어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발전한 반면 남한은 단순히 한글화만 이루어진 후 오늘까지 지속되는 점이다.

저고리 구성에서는 크기와 형태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즉 저고리 크기에서 북한 저고리가 남한 저고리보다 비교적 품과 소매에서 크게 구성되었는데, 이

는 한복이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일상복으로 착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저고리의 소매형태에 있어서 분단이후 북한은 곡선배래가 직선화되었다.

교류이후 남북한 한복의 동질화는 어휘와 디자인에서 볼 수 있었다.

북한 조선옷의 직선배래가 곡선배래로 변한 것, 디자인에서 색채가 원색과 보색배색 중심에서 중간톤과 유사배색으로, 그리고 소재가 얇은 소재로 남한 한복디자인과 유사하게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 착용이 예복중심으로의 변화에 기인된 것이다.

최근 남한에서 발간되는 한복구성책에서 나타나는 한글어휘(만들기)의 사용이 북한과의 교류에 의한 것이 아닐까 추정되나 앞으로의 연구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남한의 한복은 분단이후 디자인 중심으로 변화한 반면 북한의 조선옷은 어휘와 구성방식 그리고 디자인에 있어서 끊임없는 변화뿐 아니라 교류이후에도 북한의 조선옷에서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남한에 비해 북한에서의 한복은 정제된 민속의상이 아닌 생활 속의 옷임을 의미하며, 분단과 교류이후 나타난 북한의 조선옷의 변화는 북한의 의복정책의 변화에 따른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경공업성피복연구소. (주체91/2002). *민족옷*. 평양: 외국문인쇄공장.
- 경공업위원회 피복연구소. (1995). *조선민족옷*. 평양: 외국문 종합출판사 인쇄공장.
- 구혜자. (2001). *한복만들기*. 서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김분옥. (1983). *韓服構成學*. 서울: 수학사.
- 김분칠. (1876). *한복구성학*. 서울: 교문사.
- 金如環. (2001). *북한전통복식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여경, 홍나영. (2004). 북한전통복식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4(6), 53-64.
- 김정호, 이미석. (2002). *우리옷만들기*. 대전: 한남대학교출판부.
- 남북교류사. (2001). *통일부*. 자료검색일 2003, 7. 3, 자료출처 <http://www.korea Dmz.com/Gangwon, Cyber DMZ>
- 리유미. (1995). *조선민족의상*. 평양: 평양종합 인쇄공장.
- 박경자, 임순영. (1983). *한국의상구성*. 서울: 수학사.
- 박선영. (2001). *전통한복구성학*. 서울: 수학사.
- 박영순. (1994). *전통한복구성*. 서울: 신양사.
- 백영자. (1996). *한국의 봉제*. 서울: 교학연구사.
- 북한 최고의 한복 디자이너 양일순씨. (2002, 4. 16). *중앙일보* 자료검색일 2003, 7. 3, 자료출처 <http://nk.joins.com/article>
- 서옥경. (2002). *한국의상구성*. 서울: 경춘사.
- 소황옥. (2004). *전통한복-여자한복만들기*. 서울: 경춘사.
- 손경자. (1990). *전통한복양식*. 서울: 교문사.
- 손정규. (1935). *朝鮮裁縫參考書*. 경성: 大海堂 印刷株式會社.
- 양숙향. (2001). *전통의상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 언어이질화. (2000, 12. 28). *중앙일보*. 자료검색일 2003, 7. 3, 자료출처 <http://nk.joins.com/article>
- 역어유해(譯語類解). (17세기/1974). *영인본 국어국문학자료 시리즈*. 서울: 亞細亞文化社.
- 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박영숙, 김대년, 최연실. (1997).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 *대한가정학회지*, 35(6), 290-315.
- 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김대년, 박영숙, 최연실. (1998).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I). *대한가정학회지*, 36(11), 231-250.
- 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김대년, 박영숙, 최연실, 민현선, 박미영. (2000).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V). *대한가정학회지*, 38(4), 177-196.
- 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김대년, 박영숙, 최연실, 민현선, 박미영. (2000).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V). *대한가정학회지*, 38(5), 55-77.
- 이선재. (1993). *북한주민의 복식에 관한 고찰-북한문화연구, 제1집*.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李正玉, 南厚先, 陳玄善. (1999). *쉽고 재미있는 韓服構成學*. 서울: 형설출판사.
- 이주원. (1987). *한복구성학*. 서울: 경춘사
- 이희승. (1986). *우리말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 임상임, 유관순. (1999). *한복구성*. 서울: 교문사.
- 첫 샵 뜬 개성공단. (2003, 7. 2). *중앙일보*. 자료검색일 2003, 7. 3, 자료출처 <http://nk.joins.com/article>
- 최선형, 정인희, 강순제. (1998). 한국도시 여성의 한복착용 및 구매실태. *한국복식학회지*, 37, 33-46.
- 최영미, 조효순. (1989). 韓服의 購買行動 및 購買要因에 관한 分析研究. *한국복식학회지*, 13(0), 135-150.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한복실기*.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 홍나영, 김남정, 김정아, 김지연. (2004). *한복만들기*. 서울: 교문사.
- 황춘섭. (1977). 우리나라 옷에 대한 현대인의 의식과 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장간, 119-125.